

January 16 탐식 이기기, 감사와 훈련과 나눔으로

• 요한복음 6:47-58

예수님은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육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탐식을 물리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은 떡으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지만, 성령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분명히 합니다. 만일 먹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면, 예수님은 돌들로 떡 덩이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식탁은 감사와 회복의 장입니다. 식사 기도는 대개 천편일률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드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주신 하나님, 음식이 있기까지 수고한 손길들을 떠올린다면, 우리 식탁은 감사의 장이 될 것입니다. 과도한 탐식으로 인해 식물의 유전자가 조작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른 식탁은 검소한 식탁입니다.

금식도 좋은 훈련의 방편입니다. 금식은 단순한 고행이 아니라 음식과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과 세상에 속했으나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 금식함으로 육망과 혈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는 세상 물질의 맛에 깊이 빠져 영적인 열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음식의 절제는 나눔과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식탁을 함께 나누는 신앙 공동체이며, 예수님의 보혈로 형제자매 된 자들의 배고픔을 돌봐야 하는 '밥상 공동체'입니다(행 2:42-47). 성찬은 'Breaking,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성찬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participation)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마다 생명을 얻습니다. 성도는 떡을 떼면서 자신의 '몸'도 떼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한 음식은 탐식의 대상이 아닌 생명 나눔의 기회입니다.

나의 식탁은 주님의
식탁과 닮았습니까?

- ① 감사와 회복의 장이며 훈련의 장입니까?
- ② 찢어지고 부어지며 나누는 생명의 식탁입니까?